

월요광장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2014년 12월 1일, 광주시는 미디어아트(UNESCO City of Media Arts) 도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에 가입하였다. 유네스코 도시 가입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9개월 남겨 둔 시점에, 광주시에 낯선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이로써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문화도시로서의 외관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는 프랑스 리옹(Lyon, 2008)과 앙겔 레뱅(Enghien-les-Bains, 2013), 일본 삿포로(Sapporo, 2013)에 이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에 가입하였다. 올해에 가입한 28개 도시 중에서 5개 도시가 미디어아트 분야에 선정되었다.

미디어아트는 ICT 기술과 예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예술분야로 ICT 기술의 발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와 아시아문화전당

속도에 따라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분야이다. 광주시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은 광주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이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광주시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

창의도시가 창의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전당에 들어설 5개 원의 기능은 창의도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시급성이 될 것이다.

광주시는 전당을 중심으로 7대 문화권을 연계하여 미디어아트 산업을 특화하고 창의산업 전반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창의산업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의도시 광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5개 원의 체계적 운영을 가시화해야 한다. 전당의 5개 원과 7대 문화권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당의 동력이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될 때 창의도시 광주는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운영 주체에서 콘텐츠 구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전당의 개관이 확정된 이상, 총의를 모아서 전당의 개관에 매진해야 한다. 추진단과

개발원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지적인 문체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광주시가 창의도시로 발전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당을 기존의 복합전시관으로 격하시키지 말고, 새로운 형태의 아시아문화 플랫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각 원들의 기능을 조정하고, 종합성을 갖춘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

각 원에 배치된 감독들도 아시아문화전당이 개인의 작업실이 아니라라는 점을 명심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문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창의도시 광주의 성공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전당은 각 원의 콘텐츠를 구동할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하고 '콘텐츠 종합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콘텐츠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당과 개발원의 역할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전당이 설계될 당시 전당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왜 옛 전남도청 자리를 전당이 들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공간적 맥락에서 관계자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창의도시와 관련하여 창조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당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도 창조원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창조원이 벤치마킹한 MIT Media Lab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창조원이 어느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다. 콘텐츠와 관련된 논쟁을 북돋이기 위해서라도 창조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필자는 전당의 실무자들이 창조원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시제품이 벌써 나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당시에는 이상적이었지만, 초기의 아시아문화전당이 구상한 것이 바로 현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실험실이었던 때문이다.

광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도시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유네스코의 로고를 광주시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네스코 로고가 주는 브랜드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이한 경사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과정에서 동분서주한 문광부와 광주시, 시민포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사를 드린다.

社說

다시 고개 든 경찰관·업주 불법 유착비리

단속에 직접 나서는 경찰관이 업주와 유착해 불법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신뢰가 또 한번 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불법 유착사건이 잇을 만하면 불거지면서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 내지는 구조적인 근절책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년 동안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하면서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단속 경찰관과 불법 업주의 유착은 전형적이지도 고질적인 형태의 비리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락실업, 성매매업 등 불법을 일삼는 업주들, 조직폭력배들에게서 경찰관만 잘 잡아 단속정보만 입수하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이처럼 기초적인 수준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데도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도 비리를 저지른 이 경찰관이 직접 돈을 건네받지 않고 지인을 통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고 있다는 얘기다.

며칠 전 취임한 최충환 광주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의 지향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치안과 법 질서를 최일선에 서 다루는 경찰관의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업주와의 유착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업주와 다른 경찰관과의 관련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찰의 실수된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रो에 선 영암 F1 현명하게 대처해야

코리아 그랑프리를 재개할 것인가, 완전 포기할 것인가를 놓고 전남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년 개최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국제자동차연맹(FIA)이 갑자기 2015년 포뮬러원(F1) 시즌 일정에 영암 대회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FIA 이사회가 총 21라운드 중 내년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국 대회를 5라운드인 5월3일로 잡았다고 한다. 내년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전남도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는 지난 9월 FIA가 내년도 개최 예정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고, 대회 주관사인 FOM 버니 에클레스트 회장도 한국의 2015년 개최가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대회 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50명의 조직위원과 9명으로 대폭 줄이고 700억 원 가량의 개최 비용도 반영하지 않았다. FIA가 갑자기 한국을 끼워넣기 하

면서 개최지 중 유일하게 최종 승인을 부여하는 'TBC(To Be Confirmed)' 단서를 붙여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계산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개최권료를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물론 전남도가 대회 개최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사실 천문학적 수준의 위약금에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받아들여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사실 F1은 지난 4년 동안 빚잔치의 연속이었다. 4차례 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한 누적적자가 1910억 원, 경주장 및 도로 건설 등에 쏟아부은 돈만 8000억 원이 넘는다.

전남도는 FIA의 의도를 파악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내년도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향후 개최 여부도 여론의 충지를 모아 결정해야 하며, 계약 위반이라는 만일의 상황에 도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고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철학박사

효도(孝道)의 놀라운 효과

90%에서 37%로 낮아졌다고 소개하고, 노인들은 냉대받고 있으며 노인들의 가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정보화시대와 핵가족시대로 접어들면서 학력위주의 교육과 산업화로 전통적인 효사상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 그동안 자녀양육과 교육에 전력을 기울여왔던 노후 대비를 잘 하지 못한 우리 노인들은 이제 경제적 궁핍과 외로움, 허탈함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으며 경제적으로 제일 심하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사례 등은 가족 내의 문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효도하는 자녀가 많을수록 이러한 노인 문제들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복 많이 받는 방법은 잘 모른다. 복 많이 받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부모님과 주위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5년 서울 삼품 백화점이 붕괴하여 500여 명이 사

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때 불과 이후 10일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명석군을 비롯한 3명은 최장 11일에서 17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장기 생존자들이 하나같이 효자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군의 경우는 심신 수련을 많이 한 분이 구조반에 와서 묻혀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 구출해냈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그의 기운이 매물 지점에서 많이 발생하여 일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최군은 집에서 할아버지의 병 수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 다섯째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honor)하라'고 하고, 그리하면 '오래 살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dishonor) 신의 저주(curse)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살인자나 강도 등 중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부모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은 중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효도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정신적 안정감으로 장수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가장 원초적인 인간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 대인 관계들도 원만히 잘 될 것이고 어려서부터 부모와 소통이 잘 되면 의사소통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할 리가 있겠는가? 사실 모든 덕행의 출발은 이와 같이 효행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효경에서도 모든 교육의 원천을 효도교육으로 보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효도를 부모로 향한 일방적인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도 자녀를 진애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 주어야 하며 능력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서 안 될 것이다. 성경에도 부모는 자녀를 노(勞)하게 해서서 안 된다고 한다. 부자자효(父慈子孝), 즉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여야 한다는 쌍방향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 등의 해결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현재의 실생활에 적합한 체계적인 효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법조칼럼



이재원  
광주지검 검사

과학수사로 밝혀낸 진실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따로 분류해둔 불량 임플란트 제품 278개 정도와 플라스틱 모종판 등을 불에 태워 소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무고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주거지 이전을 사유로 사건이송 요청을 반복하였고, 사건은 2개의 청을 거쳐 필자가 근무하던 속초지청으로 이송되었다.

A씨는 사건 당시 회사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없어 출동 경찰관에게 정식으로 사건 접수할 지 모르겠다. 이후 참고 내 재고 조사를 통해 피해정도를 확인한 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화재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플라스틱 모종판 등이 불에 녹아 까맣게 굳어버린 소각잔해물이 증거물의 전부였다.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원망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였다. 시가 함께 10억원이 넘는 제품을 참고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A씨의 주장에 의심을 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려는 소규모 업체에서 고가의 의료기기를 제대로 된 보안 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은 건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필자의 면담 요청에 속초까지 한 걸음을 달려왔다. 그리고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소각잔해물, 그것도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머리가 아파올 정도의 자극을 약취를 풍기는 증거물을 검사 앞에 내려놓았다. 필자는 A씨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증거물을 분석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증거물 분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다. 방법을 강구하다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하였고, 성본 및 수량 분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소방학교에서는 비파괴 검사와 합성수지 용융물 제거 실험을 통해 소각잔해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소각잔해물에 포함된 임플란트 제품의 종류(34종)와 수량(상부 구조물 및 하부 고정체 합계 40,205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또다시 주거지 이전을 사유로 사건이송 요청을 하던 B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감정 결과의 신빙성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B씨에게 재물손괴죄의 최상한에 근접한 실형이 선고되었다.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

건은 필자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다. A씨의 때 이른 감사편지 때문이다. A씨는 감정 의뢰만으로도 실험의 성과를 떠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다. A씨는 사실상 무자력에 가까운 B씨를 상대로 재산적 피해를 받게만으로는 생각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다른 의도로 피해를 부풀리려 했던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이 무던히도 힘겨웠던 모양이다.

모든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란 쉬운 일이 아닌 이상에야 없지 않다. 그렇기에 적법 절차 안에서 수집된 증거를 통해 밝혀지는 '절차적 진실'이 형사소송의 결과를 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에 보다 근접한 '절차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의 발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바탕에는 관련자들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검사들의 열정과 의지가 함께 해야 할 터이다.

12월의 둘째 날 자정을 훌쩍 넘긴 지금 광주경찰청에는 상당수의 검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광주지검 검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이를 겨울 광주 시민들에게 따뜻한 디딤돌을 온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無等鼓

남극대륙은 유라시아(아시아)와 유라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제7의 대륙'으로 불린다. 재미삼아 '구글 맵'을 이리저리 돌리다 새하얗게 그려진 남극대륙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의외의 대원이 작은 크기에 놀란다. 남한 면적의 140배(1400만㎢) 크기로, 지구상 육지 표면적의 9.3%에 해당한다.

미치(未知)의 세계였던 남극대륙은 첫발을 내디딘 노르웨이 로알 아문센을 비롯해 영국 로버트 스콧과 어니스트 셰클턴 등 많은 탐험가와 과학자들의 헌신에 힘입어 하나 둘 베일을 벗었다.

그 가운데 어니스트 셰클턴(1874~1922)은 지금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인 탐험가로 손꼽힌다.

그는 1914년 최초로 남극대륙을 횡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7명의 대원과 함께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남극으로 향한다. 3번째 도전이었다. 하지만 미치 남극에 닿기도 전에 부빙(浮氷)에 배가 난파하게 된다. 탐험대원 맥클린은 "이보다 더 황량한 곳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묘사했다.

그렇지만 그와 대원들은 무려 634일

간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부서진 배 나무조각으로 집을 짓고 물개를 잡아먹으며 살아남아 전원 무사귀환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것도 없어서 구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새클턴 대장과 5명의 대원이 작은 보트를 타고 1287km 떨어진 사우스조지아섬 포경기지까지 항해해 천신만고 끝에 구조를 요청한 결과였다. 그래서 새클턴의 도전은 '위대한 실패', '위대한 항해'라 불리기도 한다.

네덜란드 여성탐험가 마는 오스포르트(38)가 트래터를 몰고 남극 횡단을 나서 화신에 힘입어 하나 둘 베일을 벗었다.

그 가운데 어니스트 셰클턴(1874~1922)은 지금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대표적인 탐험가로 손꼽힌다.

그는 1914년 최초로 남극대륙을 횡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7명의 대원과 함께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남극으로 향한다. 3번째 도전이었다. 하지만 미치 남극에 닿기도 전에 부빙(浮氷)에 배가 난파하게 된다. 탐험대원 맥클린은 "이보다 더 황량한 곳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묘사했다.

그렇지만 그와 대원들은 무려 634일

남극 탐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문·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D 자 인 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세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